

지상파 TV 3사 음식 프로그램

생명경시 “너무해”

보리방송모니터팀 조사

채널을 돌릴 때마다 어느 채널에 선가는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다. 요즘 넘쳐나는 음식관련 프로그램들, 사단법인 보리방송모니터팀이 신선한 먹거리라는 미명아래 많은 생명들이 식도락가 리로 전락, 희생당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최근 ‘생명생태 시각에서 본 음식문화 프로그램’ 모니터를 발표한 방송모니터팀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지만 어떤 어떤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 죽이든지 상관하지 않는 음식 프로그램이 비밀비재하다”며 “음식의 재료가 되는 동식물이 단순히 인간의 먹거리가 아닌 또다른 생명체임을 자각하지 않는 방송 시각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생명체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빈번하게 노출됨으로 인해 생명경시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성 또한 죽게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는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 노출 빈도 높아 교양 프로그램 본래의미 잃어... 개선 시급

것이다.

방송모니터팀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교양 프로그램 121개를 대상으로 음식 관련 소재를 다루는 빈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교양 프로그램의 24%인 29개 프로그램이 음식관련 소재를 다루고 있었다. 전문 음식 프로그램이 7개, 음식을 주로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이 22개다. 방송사별로는 KBS2TV가 5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SBS 31%, MBC 28%가 뒤를 이었다.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은 음식관련 내용을 방영한 MBC ‘공감! 특별한 세상’은 방송 내용의 63%가 음식관련. 이 가운데 살생 장면만 10번 이상을 담고 있어 폐지해야 할 프로그램 1순위라고 방송모니터팀은 밝혔다.

MBC ‘생방송 화제집중’ 9회, SBS ‘웰빙! 맛사냥’ 8회 등이 살생

장면을 많이 담은 프로그램으로 드러났다.

한 회에 수차례의 살생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살생 장면 노출 빈도수는 위의 수치보다 훨씬 높았다.

끓는 물 속에서 몸부림치는 갑오징어(KBS2TV ‘무한지대 큐’), 악어 껍질 벗기기(KBS2TV ‘놀라운 아시아’), 산 가물치 반으로 가르기(KBS2TV ‘UJ특공대’), 자라 등껍질 열고 다른 재료 넣기(MBC ‘찾아라 맛있는 TV’), 살아있는 칠감상어 척수 빼내기(MBC ‘생방송 화제집중’), 칼로 코브라 심장 도려내기(MBC ‘공감 특별한 세상’), 몸통만 남아 요동치는 갯장어(SBS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등 요리 과정에서

잔인하고 회화된 살생 장면들이 여러 차례 방송됐다.

방송모니터팀은 “KBS ‘무한지대 큐’를 비롯한 대다수 교양 프로그램들이 30% 이상을 음식관련 내용으로 채우고 있어 ‘교양’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의 통계는 월드컵과 관련하여 교양 프로그램이 3주이상 파행운 영됨으로써 평균적인 수치보다 낮게 나왔음을 감안할 때, 평소 교양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가 음식관련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보리는 “교양 프로그램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관련 프로그램들은 양적으로 줄어야 한다”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모두 공유해 지상파 교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음식이 곧 ‘생명’이라는 견직한 음식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결론짓었다.

간지영 기자 jyang@buddhapia.com

청소년관 ‘달마야 놀자’

민주 송광사, 비행소년 대상 템플스테이

8월 1일부터 3일까지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에서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국 최초로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가 열린 것이다.

청소년관 ‘달마야 놀자’는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노정환)가 법원에서 수감명령이 내려진 12명의 청소년 수감명령대상자를 위해 마련한 특별 심성순화 체험프로그램이다.

질풍노도의 시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맑게 하고 자아 성찰의 계기를 갖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색 체험행사였던 것이다.

템플스테이는 꼭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됐다. 억압적인 분위기를 싫어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기분’은 배워야 했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던 우성 스님으로부터 사찰예절을 간단히 배운 후 곧바로 발우공양 습의를 시작했다. 이후 저녁에 불과 부처님 이야기, 마음나누기, 경전공부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라모군(17세)은 “TV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산사체험 교육에 직접 참가하고 나니 매우 흥미롭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며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생활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모양(18세)도 “산사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처음엔 다소 경직되고 딱딱할 줄만 알았는데 막상 마치고 나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성 스님은 “참가자들이 강제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해지는 모습을 봤다”며 “짧은 일정이었지만 산사에서의 수행과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참다운 나를 찾음으로써 재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김경복 전주보호관찰소 집행감독장은 “수감명령 집행방식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늘려 개인의 자아성찰과 정서순화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찰 예절 배우며 자유롭게 ‘심성 순화’ “흥미롭고 모든 것 새롭게 느껴져”

19기 불교귀농학교

귀농과 도시에서의 자연친화 생활을 위해 열고 있는 불교귀농학교가 열아홉번째 신입생을 모집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삶, 조화로운 사회, 생명을 살리는 농업’을 주제로 8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19기 불교귀농학교를 진행한다.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불교귀농학교는 이론과 텃밭 실습, 남원 실상사 지역공동체 현장실습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병철 귀농운동본부장, 도법 스님, 장창호·최석민 농부 등이 강단에 오른다. (02)576-1886 박봉영 기자

은평구사원련 · 인덕원, 수해현장서 봉사

‘수재민에게 희망을’ 나누는 불교계의 온정에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도 힘을 실었다.

은평구사원련과 인덕원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해현장을 찾아 7월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평창지역에서 수해복구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대민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에게 2000만원과 250만원 상당의 선공기 50대를 전달했다.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산천

사 주지)과 은평구 사원련 소속 스님, 15개 산학시설 시설장 및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수재민들의 가계도구 정리와 농지복구, 하수도 정비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복귀할 때에는 복구장비 일체를 수재민들에게 기증했다.

한편 인덕원은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집중호우로 영락중학교 석축이 붕괴돼 피해를 입은 서울 영암동 수재민들에게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점심과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박봉영 기자

문화유산 공로자 포상 문화재청 14일 추천 마감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들에게 ‘문화유산보호서훈’과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수여한다.

문화재청은 8월 14일까지 ‘문화유산보호서훈’과 ‘대한민국문화유산상’ 후보자 또는 단체, 기관을 추천받아 각 5명씩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은 보존·관리, 학

술·연구, 봉사·활용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문화유산보호서훈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 15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의 수공실적이 있어야 하며, 문화유산상도 5년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

수상자는 10월 중순께 선정·개별 통지되며, 시상식 문화유산현장 공포일인 12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042)481-4811-2, www.cha.go.kr

노병철 기자

독탁소리

7월 30일 해남 대흥사가 위치한 두륜산 도립공원. 4천명 정도의 대 인파가 더위를 피해 두륜산 계곡을 찾았다. 이들은 모두 25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내고 두륜산에 입장한 관람객들이다. 대흥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곡에 인파가 넘쳐도 화장실이나 식수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찾을 수가 없었다. 화장실은 어디에 가려면 대흥사 주차장까지 30~40분을 걸어가야 한다.

가족과 함께 놀러왔다는 임경씨는 “아이들 데리고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40분이나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에, 그것도 관람료까지 받으면서 편의시설조차 갖춰놓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흥사에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나고 문의하자 대흥사 관

계지는 “문화재관람료는 그런 시설과는 관련이 없지만, 관리 공단측과 협의해 간이화장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다. 풍광이 뛰어난 계곡에는 으레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사찰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두륜산 계곡에서도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이 많았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가 그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듣는듯 마는듯 했다.

행락객들의 이러한 행위가 사찰에 직접적인 거부감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찰을 참배하려는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가 때 행락객들의 무질서한 행위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사찰과 공원 측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주고, 조금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락객들을 바로 잡는다면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소로 거듭나지 않을까. 고평배 기자



조계사 선재법등 주최로 7월 31일 어린이 국악체험 법회가 열렸다.

조계사 선재법등 어린이 국악법회 열어

조계사 선재법등(회장 최미은)은 어린이불자들을 위한 국악체험 행사를 7월 31일 서울 메이필드호텔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국악을 통한 우리문화 체험의마당으로 학부모와 함께 하며 어린이포교의 새로운 형식으로

열었다.

오노름민족음악관현악단의 연주와 소리꾼 박애리의 협연으로 우리소리의 멋과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또 이날 어린이들은 스님들과 선생님, 엄마와 함께 잔불가 등요 등을 따라 부르며 사찰 법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체험을 통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글·사건·조용수 기자

‘세종대왕 일대기’ 무료배포 미주 금강경독속회

올해 초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소개하는 영문판 책자를 제작, 미국 전역에 무료배포해 호평을 받았던 미주 ‘금강경독속회’가 이번에는 세종대왕 일대기를 제작해 무료보

급한다.

‘미주 금강경독속회’는 8월 말까지 영문판과 불어판으로 ‘세종대왕 일대기’를 제작해 보급하고, 추후 독어·이태리어·중국어판도 제작할 계획이다. 배포처는 미국 상·하원과 교육부를 비롯해 미국 전역의 대학과 고등학교다. 한영우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 [금물] 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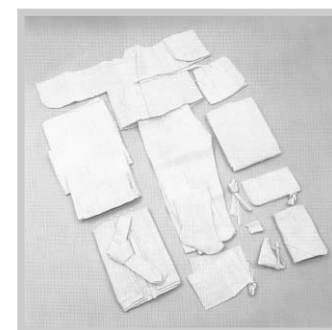
02)747-1760

전화 주문 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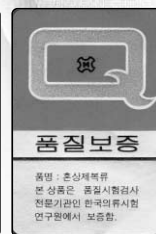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베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프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성분)	원단가공손질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복안동	경복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복안동	중국(산둥)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O마크 획득



.....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제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더모여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애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속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대,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성이 얼마남지 않았던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성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진다.